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신국원 (충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새 학기를 앞두고 겨우내 애쓴 학생들과의 관계가 학교라는 세상 변수 앞에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궁금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Q1.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들은 꿈을 꿀 것이라?”
여기서 꿈은 비전인가요? 그렇다면 할아버지도 비전이 있을까요?

영원한 비전의 청년들

성경의 비전 이야기를 살펴보면 노아나 아브라함
처럼 노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
함은 100세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모세
는 80세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
호수아나 갈렙과 마찬가지로 비전이 있어 늙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은 늙을수록
밝아졌습니다. 욥은 약해져 갔지만 영안은 날
로 밝아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
습니다. 가나안 땅을 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히 11:10,16)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거
치며 부활의 세계도 보았습니다. 비전의 빛을 잃
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영원한 젊은이였습니다.

보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의심이 사라지
고 확신이 생기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비
전을 잃으면 누구나 금방 노인이 되고 맙니다. 소
망을 잃으면 늙어버립니다. 잘나가던 이들이 승
진이 좌절되거나 명예퇴직 후 갑자기 나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들은 다릅
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계속 앞에 있는 쫓
대를 바라보며 상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걸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후 4:16-18

믿음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Q2. 비전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과 모바일, 최첨단시대에 비전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나요?

눈을 밝혀주는 비전

과학기술은 지난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주의 창이라 불리는 허블(Hubble) 망원경은 200억 광년 떨어진 별들을 코앞까지 당겨 줍니다. 텔레비전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현미경으로 분자 속을 들여다보고 엑스레이로 뼈속을 투시합니다. 내시경과 초음파 기계로 장기 내부와 태아의 성별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인의 눈이 밝아졌을까요?



우주의 끝과 혈관 속까지 관찰하면서 정작 삶의 의미는 얼마나 밝히 보고 있었습니까? 옛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햇살과 같아서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시 19편). 오늘날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 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혼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간 이들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전을 품고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전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도 이상적인 영웅이나 위인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살아간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안경입니다.

Q3. 비전의 안경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창조-타락-구속: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비전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요약하곤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진리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안목을 갖게 됩니다. 성경 속 비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며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러나 또한 타락으로 인생과 문화가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의 진리는 죄로 망가진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옛 성도들은 이 비전을

품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며 후대를 위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저는 히 11장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곤 합니다. 현재 우리가 그 뒤를 이어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뒤로 또 다른 신앙의 후예들이 이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행렬은 주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비전은 온전한 실재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의 비전은 구속과 하나님 나라이며,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성경의 비전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는 비전

성경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합 2:3

구약시대 말 애타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들레헴 말구유와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고 삽니다. 구약 성도들이 꿈의 실상을 보았듯이 우리도 비전의 실체를 잡게 될 것

입니다. 아니 이미 믿음을 통해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전은 항상 현재적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옛 성도들은 결코 먼발치에서 서서 잡히지 않는 꿈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비전은 죄의 악몽을 깨우고 헛된 백일몽을 깨우쳐 줍니다. 젊은이의 눈을 열고 노인의 꿈을 되찾아 줍니다.



성경은 환상을 본 선진들의 이야기이며 꿈꾸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비전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담긴 옛 성도들의 작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도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들던 이야기'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우리의 응답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 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계단공과 <생명의 빛>의 교사용 교재로 함께 제공됩니다. <월드뷰>를 통해 소개할 기회를 제공해주신 신국원 교수님과 총회교육부에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NP) 등이 있다.